2000년 서여대협(건) 평가

건대

성과 : 대표자회의 꾸준히 진행, 서여대협 이름으로 사업과 투쟁을 하려 했던 노력. 그럼으로 인해 서총련에 복무, 수요집회, 방중총화 결의대회를 서여대협 차원에서 진행한 점, 전여대협 수련회를 서여대협에서 받아안고 진행한 점등

한계 : 서여대협 체계가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 지도사업의 부족, 조직적인 성과를 내오는데 대한 고민 부족, 사업공유가 총화되는 형식으로만 진행, 사전에 보탬되게 계획되지 못함.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결사관철하지 못했던 점, 회의체계의 한계

경기

성과 : 서여대협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결정난 사항을 집행해가는 과정의 성과, 자체투쟁 일구었다는 성과, 윤금이 씨 투쟁->주동적인 제안

한계 : 회의 준비 부족, 풍부하고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데 부족, 생산적으로 고민 풀어가지 못하고 총화로만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한성대 명지대 등 다른 학교의 결합력 낮은 부분

과제 : 자체 정세토론 진행하자,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 사업 진행했으면 한다. 서여대협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자.

경희

성과 : 서울지역 여학생운동을 하나로 만들려는 기풍, 서여대협 투쟁 만드는 데 꾸준한 노력

한계 :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놓고 고민한 한계, 현재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맞추어 투쟁과 사업 조직하지 못했다. 그럼으로 인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의의성이 좀 떨어졌다. 서여대협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 다른 흐름의 여학단위와 소통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이지 못했던 아쉬움.

전체 결의로 내년 전망

평가를 남기자. 이월사업을 1월 경에 진행하자. 서여대협 총화주체가 있으면 좋겠다. 교양을 서총련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자. 자주적여학생운동에 대해 서총련 전체 학우가 접할 수 있도록 하자.

2000. 7. 24.

서

동아대 - 상반기 x. 교환학생들

경상대 - 예술원제(4월), 개강파티.

부산대 - 학칙O, 상반기 개강x, 학생대표랑 교내에 살고 있는 사람 - 남성.
학생회장 선출에 관심 없음, 관심 너무 없다고.

울산대 - 상당히 개성 강함. 생활관에 심리센터 있음.

진주교대 - 상반기 교환 학생 없음. 하반기에 교환 학생 있음. 교수지망은 대학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대 - 15대 정책 때 기념 동아, 그외의 시험 없이 학교측에서 제출한다

제주대 - 아직은 없었으나 생활관 신축 계획.

공주 - 학생회 없음, 생활관 신축 계획.

서울대 - 대학제 때 대동제 있고,

충북대 - 정기적인 MT(2학기), 학술·교육(일본)

건국 - 봄가을에 MT, 오티에 있고. 스터디 있고,
학생회 제외 생활관 없어, 그외에 특별 활동 같은 것은 없다고 함.

경상대 - 기숙사 자치회 중, 체육·교양·학술 1.2부로 나뉘어 운영 시키고.
(경상·교양·학술)

교육원 시험관련.

경상대 - 교육부장 있고 MT, 기획지원, 예산관리 (학생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함)
학생회에 대해 서술하고, 동아리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다.

남서울대 - 대학교육원과 다른 동아리 제외, 학생회 (동아리 수준)
생활관 학술제에서 특강 열리고 있음
생활관 생활 너무 기숙사 같다고 불만 많다고 함.
해외유학. 제일주의 생활하고 있음 유학생 지원하고 있다고 함.
개강 때 학술제.

제주대 - 총학생회 장애인 수해복구 제주. 국토 대청소 중.
2학기 생활관에 교수 지원 없음 중.
총학생회 선거 → 기숙사장 이동. 학교측에 의사를 물어

경기에 — 경기 진출X, [redacted] 선수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경험. 경험에 경험 제공 제공. 선수
감독들에게 전달전달. 경기력향상에 어떻게 연결 ...

경기력 — 과학이나 생활적 데이터적,
신체. 다리에. | , 지원팀, 선물팀.
에 생활하게 |
운동에서. | 동작에 기술이 — 감독들에게 제공.
— 과학적 분석자.
카메라 감독, 촬영감X.
데이터 감독, 스태프,
에서 연결.
그러기 위해서. 때 경기력
현재 데이터 기록자로 제공한 상태.
(측정 제공 2회기 제공 중.
→ 선수들 데이터 연결 예정.
→ 개. 특히 팀 경기력 향상

목표 — 우리 데이터 기록 측정.
앱으로 데이터 관리. 영상 제공.
시스템 — 생활기록 — 100,000
등록 (팀에 개인이 등록하지 않아도 됨.
이후 회원등록 스태프

방법 — 데이터팀. 선수팀. 기록팀 지정
[감독]을 만들것

일정 — 데이터 회의 2주 등록 끝내야 함.
— 2회기 2주 연결 선수 데이터 .

→ 여학생에게서 책임을 회피
장기적 계획.
학우애로 함께 극복하나 청년기의 특징 서서히 소멸.
다양한 여학생 대형 서사.
돌일 동반자 - 두려움, 여성혐오적.
현실적이지만 희망 - 기존의 이해 넘어서.
중학생의 성적 관리 - 대표투자를 지능이라는 이름의 외모 부여 투자.

대학 - 여학생라이프를 하나로 일반화 할 수 없다 ##.
※ 대중문화에서의 묘사. 여자들을 성적 소비를 느끼는 존재,
3학년 - 졸업생의 투자법 어떻게 바뀌나?! "지적 투자를 멈추자." 고민.
3.5세대 여성의 삶 투자,
독서에 대한 고민, 독서를 어떻게 지속하고 풍부할까!
※ 대표자들 특징(-논점)
대학원 진학 → 이것을 어떻게 긍정할까!
학우들 속에서 외로움 …
사내연애, 결혼 → 여성혐오 … (?)

4학년 - 고학년 때 문화 사수
동아리, 학술
자체문화에서 부문문화에 대한 고민
중심X, 덜떨어진 시선 제거.
문화위주X.
"대학교까지 와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해?" 생각.
졸업생의 결혼을 어떻게!!

졸업 - 문화의 다양성
- 여학생문화 지속.
학우들의 인식
고학기 여성혐오 반응,
대중을 기반으로 하되서
문화적 취향 설정 필요

고학년 - 98 과 학회
과학에 몰두해야 하나.
부차적 사회와의 접점.
과도기적 시선에 휘둘리는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사람들에 대한 태도 변화,
졸업학생들에 대한 인식들
→ 변화했다.
학업외적 자기 대중을 찾아보려 하지 못하고 학업적 태도로 대해지는 사람들이 많음.
내부적 문화 형성 어려움.
- 사람들과 어떻게 놀지 -
동아리에서 연애 형성이 어려움.
술-강박, 자리에서,
→ 자취적에 몰두하게 됨.
운영위 참여 X,
당연히 여학생들 많음,
→ 그 사람들 챙겨야 했다.
운영에 대해서 참여의 인식들을 키우고 싶다
대중을 위해서 책임질 것인가.
대중사랑들 …
소통시간 제공 수업하고 있음
→ 고학기 중요.

동아대 - 3학년 대학생활. 4학년 취업 5학년 6학년 장.
대학 2, → 대학 자체가 없다.
대학원 (생략, 고민)

대학원 - 1학년 학생회 X. 2 과잉된 활동
지적주제 대한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공부생활. 학문에 대한 존재 인식 X.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공부하는지, 사람들.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대학원과 사회는 거리에 대한 고민들.
공부를 차츰 커가는 모습.
학술, 고전 생활 강화하고 싶다.

제주대
- 과목들 학우대중에 공감되지 않음,
- 차별 하는 문화, 고정된 성격(?)들.
- 학업에서, 여학우들 소통하기 어려움.
정체성 없음.
- 사회는 없는데 잘 적응하지 않음…
-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려 함.

경희 - 여학생문화의 고민 없다 O.
대표자로 갖춰야 할 고민들.
대중투자와 대중사랑의 불균
개인에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서울대 - 지방에서 왔지, 새로운 경험.
-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
- 졸업생활에서 우리
- 당연을 부여하다.
- 21세기 여학생 주도.
- 고민들이 공감되지 않음.

@ NY 1년 평가

1. 정세

- 2000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 분국 민족해방전을 앞두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
  - 객관정세 - 미.일.북.핵의 구도. 전쟁책동 군국주의 부활, 정상회담
  - 주체정세 - 민중들의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자주적인 사상의식 급격히 고양
    DJ에 대한 구도, ~~#~~ 특검자금에 대해 고민 필요.
    ↔ 반핵~~#~~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 요.

- 2000년 여성정세 또한

  - 자주.민주.통일에의 대중적 참여 ↔ 여성노동자 · 여성농민
  - 여성정치인들의 급비정을 부족

- 정세 인식과 분석에 있어 성과와 한계. 여성민중들을 통한 정세인식X

  - DJ 분석 한계, 정세 인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 정세 인식 관점이 올바름.
  - 성과 - 계속적인 여성정세 놓치지 않고 사업.특집 제작
  - 정세의 중요성. 내것으로 받아안지 못하는 것. 구체적 정세인식 X
  - 정세토론, 여성정세 중요성 인식 X 상층의견 경향.

2. 대중투쟁영역

14 15 16 (2)

- 대중투쟁영역별로 평가

- 분단자주화 : 전인특위, 학한미군 반대, 기획, 미 핵사탄방

  성과 - 범미의 주력 과제, 의식 상승, 기획.

  한계 - 주도적 제고, 연대강화 부족. 세부별 감성적에 상해 아쉬움

  ✕ 한미행정협정에 여성.인권 보는 온국아우름 전인특위 주도적 관점부족

  ✕ * 특집을 만들지 못했으나 대중사업과 특집국에 많은 내용있다.

- 범일투쟁 : 학생행정, 전범법정, 40주차 수요시위

  성과 - 많은 곳곳의 일상, 40주차 보장, 고대 보장.

  한계 - 주도적 자세부족 속에서 중요성 부족, 일상과 흐름 부족.
  여성인권관점 문제점에 국한. 6.15이후 고민하는 계기
  통일의 일상과 결부 부족.

- 남북교류협력국화

  성과 - DJ 정책상 특징.

  한계 - 지난해와 차별 여성농민, 노동자 특징 관점 x

- 정세에 개방한 사항과 특징이 제대로 되었는가.

제조업 되었다. 주된 증상과 계절의 복귀. 여학생 대중속에서 상승↑X.

→ 남여대학 평가서 제출 기한 → 우리학교에서 각자 내일까지
→ 정세토론 어떻게 (사회계획 제출 토론.
- 정세인식 토론
- 사회계획 안지 재도
- 대중투쟁 관계의 대해

◎ 정세인식 원인 대안

- 공안성 인식 복귀 내기화 하지 못하는 것.

대안 → 남여대학 중심의 정세토론을 활발히 하고
지역에서 매 계절정세주간 일상화 활성화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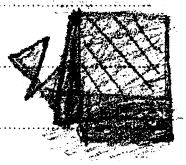
→ 여성의 정세를 알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자.

◎ 사회계획 계획의 문제

- 목표로 사회계획으로 계획되었는가
- 계획의 문제인가

} 원인이 목적일까 //

⇒ 평가보완 자료집 만들자



• 일대투쟁

성과 - 개학부터의 연대활동, 학교의 공안성 인식, 각대학마다 일대

한계 - 많이모이는데 일대비용, 일상적·학원자 일대X.
정세인식의 생활투쟁의 복귀, 정치적 과제 형의 및 스케줄을 이끌지X.

→ 남여대학 일대사업 기본 꼭 필요.

• 조직투쟁특재 //

- 자고 고민, 등록준비 6.15 서울 지자일체, TS.

성과 - 등록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한계 - 자고에 대한 공안성 복귀, 부담감으로 느낌, 대중적흐름으로 만들지X.
자고 이외에는 고민하지 못함 정기적으로 복귀.

• 생활적 학칙 제정 투쟁

성과 - 공영화 고민, 생활적 성과를 가져오려고 함 ■ 대학자체 계획, 흐름 형성

한계 - 이후 구체적 상황과 흐름을 만들지 못함.
강대위의 지속적 활동 복귀.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전작업, 계획의 복귀.
학생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⑥

동- 생활 내 이웃을 그룹 : 생지학습 수준. → 지방 고민 O
해- 수행 정도 여행 적극적인 의지로 주체 1명 소외없음.
↳ 장기적으로 참여 긴장 고민
목적 : 참여정도의 지시를 참여하장. 생리욕구에 관련되는
↳ 네트워킹 모임. 참학여부에 따라서.
전. 로. 교. 여관
조- 혜. 복희. 길복구. 허 2명.
예. 자. 공. 상. 법 <미. 치>
- 남여대학 중심의 정치사상생활 평가 (진행현황에 따른 나왔던 문제, 대안)
, 일정적 실행 사항,
· 의식은 지정 - 사상생활 담보 미흡, 개인학습 위주 재발자개생활 촉구 ★
· 대안 → 여성학습 담보하자. 모임 전 사상학습 진행
- 전반적 평가.
(자료적 여학생운동가 발굴 선정가
고여운 제안학

⑧

의장님 { 장점 : 낙관적. 차세대 핵심주장. 개인적 큰 발전. 、 능적.
단점 : 주동성. 우유부단한 근절. ※고민정리필요. 능적한 생각.

비판
◎ 집안문제를 푸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 장기적인 면이 있으면 좋겠다.
동화 주기가 있었던 시기 - 대책이 없었던 것 같다. 고민되는 과정을 얘기해주면...
◎ 많은 시간 함께해서 좋음.
◎ 어느자리에 있든 잘 사리라 생각.
의장님 ◎ 어른스런 책임. 느낌.
◎ 꼼꼼하지 못하지만 크게 보는 것 같다.
◎ 큰 집안문제지만 기복없이 생활.
◎ 술 먹고 생활 안 됐을 때 아쉬움.
◎ 농활기간 힘들었을 때 충화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 가끔 충화란 말때 답답함.
의장님 학습을 통하여 하는 경향. 여성학 학습 보족.

⑤

- 전반적 성과·한계 - 대안과 과제.

성과 - 고민을 놓치지 않고 진행

한계 - 대학사회 특징을 일상화 하지 못함.
(경연회, 영화제, 축제제 등등)
- 일반 여학우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함.
자기 대중을 갖지 못함.

대안 - 대중과를 목표로 세우는 문제

3. 조직사업영역.

단위조직현황 평가

- 기층단위까지 (과여부, 단위에게 - 현재의 상황과 한해 운영), 조직사업영역을 진행정도

목 - 회, 부회, 국장 (중도 하차)
반이 여성에 최적된 새내기 주회이, 회장이 같이 생활 같이.
과여부 확대운영의 경우, 자율봉사하려는 노력.

그러 - 결제과정, 회비납기 등 정해진 일정적 진행.

4상 - 중앙에서 제제하는 것 5대부 - 방향, 주로 방학지도, 학술세미나 KOREA

⑥

- 지도사업 평가 (형태, 방식)

참여있는 대학의 대학 지도 성과. 일관된 지도사업 성과
지속적 흐름이나 활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
대학에 대해서 가지고 지도하는 게 필요.
시스템적 보완을 추구하려는 노력 필요.
보통 단위의 대학 장기적 구도, 전망 마련 필요.

- 대표자회의
교양이나 학술의 자리, 정세토론의 자리
단위의 실제적인 고민공유 자리로

- 내년 ※ NY 전망 - ●NY 중장기적 전망 내용과 여학생운동의 신념화 일환
- 중장 구도 - 의장, 열사, 조직 검장.
- 인선대상자 - 3명 + 참관(?)

* 주체중화 *

동화 - 오빠 : 자동차정비 중방 : 아르바이트 자꾸 저에게고 싶다는 생각.

~~장점 - 동아리들 꾸준히 챙겨준다, 꾸준한 중화 : NY 전망 부족~~

단점 - 적극적 (의사표현) 필요, 남성적인 리더십 고민.

상반기 평가

0. 정세 인식에 대한 평가

<민족민주운동 전체 정세 분석>

우리는 일제에서 미제로의 식민지 지배속에서의 한세기를 마감하고 자주의 새세기 2000년을 맞이하였다.

우리 민족은 망국의 기운이 드리워진 1900년대를 보냈지만,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4· 19의거,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은 우리민중들이 미제와 파쇼독재에 대항하여 떨쳐 일어섰던 대표적 예이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서 급속한 앙양기를 가져왔다.

반미 자주화 투쟁이 선차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반파쇼 민주화 투쟁에서 사회의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를 찾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이 분출하였으며 조국통일 운동에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루었다.

그 성과로 99년 9차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를 범민련 10년의 역사를 총화하며 어느때보다 거족적으로 성사해 내었다. 또한, 민중들은 97년 12월 3일 들어온 IMF 경제침탈 속에서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에서부터 대정부 투쟁, 그리고 본질이 미국에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되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쟁하는 세력에 대한 정권의 광폭한 탄압과 참여와 투쟁포기론으로 투쟁하는 단체들을 와해, 말살하려는 책동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투쟁하여 주체역량의 양적, 질적 축적을 가져왔다.

그 투쟁의 선봉에는 언제나 한총련이 있었다. 한총련은 투쟁의 과정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다하여도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투쟁하여, 사상적 성장을 굳건히 가져왔으며 민중속에서 선봉대적 위치를 확고히 심게 되었다.

2000년 '범국민 반미구국항전의 해'라 규정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상반기를 평가 해보자.

-반미투쟁

작년 AP통신을 통해 보도되었던 노근리를 비롯한 한반도 전지역의 양민학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올해를 들어서자마자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성희 언니, 서정만 할머니의 사건은 주한미군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난 5월 매향리에서 기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떨어뜨린 폭탄에 의한 사고로 50년이 넘게 전쟁터로 살아야 했던 매향리의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우리 민중들의 반미감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었다.

6· 25 50돌이 되는 때에 결성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는 전민족의 반미의지를 모아가는 중요한 조직적 성과이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반미감정을 실천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수많은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양민학살 진상규명에 대한 서명이라던가 매향리를 각계각층이 한데 뭉쳐 실제로 철거해내는 투쟁을 진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으로 예전에는 합의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주한미군 철거투쟁이 대중화되어가는 큰 성과가 있었다.

-반파쇼투쟁

올해 초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더 이상 썩은 정치를 가만히 앉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바꿔보자는 의지를 표명한 투쟁이었다. 정말 광범위한 대중들이 함께 진행했으며 실제 낙천낙선자 명단에 오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떨어졌다. 김대중정권을 총결산하는 투쟁에

크게 한 몫을 한 것이다.
반파쇼 투쟁에서 작년의 성과를 이어 올해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공안기구를 해체시키는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졌다.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파탄나면서 민중들 안에서 국가보안법은 실제로 무력화 되어가고 있다.
-조국통일투쟁
조국통일의 구호는 이제 더 이상 8월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반기 투쟁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 왔고 확인되어졌다.
올해 1월 26일 범민련 전사 김양무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분단 조국의 현실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겨울 방중 시기에 수천여명이 수십여일 동안 김양무 선생님 평양방문 성사투쟁을 진행하면서 '광주에 가기 전에 평양에 가고 싶다' 는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서울 시민분들을 헌신적으로 만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국통일의 정세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급진전하게 되었다. 바로 6.13-15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남 민중들은 평양소년예술단의 깜직한 공연을 보면서 TV에 보도되는 이북의 곳곳을 밤새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 반공반북의식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의 이정표인 6· 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자주통일의 길이 환히 뚫리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 더욱 더 광범위한 대중들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합의해 내기 위해 분산개최를 하여 8월대회를 2000년 통일대축전 10차 범청학련 통일축전으로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조국통일의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반미투쟁과도 아주 밀접히 결합되고 있다.

<여성정세 분석>
-미제에 (미군) 의한 우리 여성민중의 피해
민중들의 반미투쟁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지만 미군에 의한 우리 민중의 피해는 그칠 줄 모른다. 올해 초 김성희 언니, 서정만 할머니의 미군에 의한 살해사건이 그것을 이야기 해 준다. 그리고 폭격 훈련장이 있는 매향리는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곳의 상황으로 인하여 기형아 출산과 유산률이 많다.
반미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여성 민중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이 여전히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조선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는 2000년 국제 법정이 열리는 해이고, 어느때보다 국제적 연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니만큼 3자연대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다.
-여성 민중의 현실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70%이상이며, 재취업도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회사내의 성추행까지 (롯데 호텔의 상사로부터의 성추행 등). 정말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9개 지역에서 ' 비정규직 여성권리 찾기 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여성농민은 삶은 더더욱 피폐하다. WTO 수입개방 강요와 잘못된 정부의 농가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은 연쇄도산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농촌의 여성은 농업경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자 농민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하며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고 똑같이 혹은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일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여농은 자주농업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신자유주의와 WTO에 반대하는 투쟁을 당당한 주체로서 해 나가고 있다.
여성민중 또한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에서부터 이 땅 분단의 모순이 미제에 있음을 일깨우는 과정이었으며 실제 투쟁에로 일어서고 있다.

<여학단위의 주체 정세 분석>
단위의 일꾼은 몇 안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핵심들이 낙관과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여 여성민중을 자주적 주체로 세워내는 데 선봉장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운동의 대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 골간체계의 복구와 강화와 여학단위 두리로 많은 사람을 결집시키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지점이 많이 있었다.

<정세 인식의 방법과 형태 및 인식정도에 대한 평가>
전여대협에서 나오는 사업 계획서를 가장 중점에 두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정세 인식을 한다. 사실 인식정도는 전체 민족민주운동 정세에 비해 여성정세에 대한 부분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부족하다 하여도 주위에 보면 책이나 자료도 많은데 그것을 주동적으로 보지 못했던 주체의 노력 부족이 가장 크겠고,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정세에 대한 집단적인 학습이나 토론이 거의 부재했던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올바른 정세인식에 근간한 사업계획과 투쟁이 도출되었는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투쟁하였고 실천투쟁중심으로 투쟁하였기에 정세인식에서 큰 무리는 없었다. 그러나 학우들과 기층 여성민중에 깊이 뿌리박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학우들의 의식지형을 파악함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고민이 늦게 되어 주동성을 잃어버리고 치르기식이나 형식주의적인 모습이 일정정도 있었다.

1. 대중투쟁 평가
→ 전여대협 평가와 단위의 평가 두가지로
(1)영역별 평가
<주한미군 철거투쟁>
어떤 정세 속에서 제출되었는지는 위에서 언급하였다. 주미철 투쟁은 어느 한 사업이나 투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투쟁과 사업 속에 녹아져 있는 투쟁이다. 올해초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여성이 또 살해됨에 더욱 더 반미의 각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전여대협에서는 전민특위 사업을 통해 주한미군의 만행을 폭로하였고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가장 크게 내걸었던 구호이며 여성민중들에게 끊임없이 선전의식화 하였다. 우리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유인물 등 일상적인 선전의식화 사업이나 해오름제나 대동제 등 대중사업에서도 끊임없이 학우들에게 알려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 일상사업으로는 금요집회의 주체를 세우고 학우들과 함께 집회에 다녀온 것이다. 새내기들에게는 반미의식화의 좋은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주체를 끝까지

튼튼히 세우지 못한 한계와 다녀온 사람들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어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만 가게 된다든지 그 시간에 있는 사람만 가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해오름제 때 주한 미군 범죄를 심판해 달라는 스티커 설문을 통해 학우들의 대중적인 분노를 모아내는 과정이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전여대협에서는 400차 수요집회를 통크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3자 연대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교사업의 노력들이 있었다. 단위에서는 정대협과의 연대사업 속에서 이 문제를 단위 안에서 주동적으로 고민했으며, 작년의 지문찍기에 이어 올해 학접기로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금요집회와 마찬가지로 수요집회가 대중을 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내는데 유력한 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 투쟁>

전여대협에서는 성폭력 규제 학칙 공대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이다.

단위에서는 상반기에 고민만 있고 실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방학을 시작하면서 부총장이 한 조교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방중에는 그것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대자보와 편지작업을 통해 학우들에게 알려나갔다. 지금의 상황은 그 자가 교수직까지 사직서를 낸 상태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총장과 그 교수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할 것이고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성폭력 매매춘 근절 투쟁>

<공동연대투쟁>

여학단위에서도 공동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공동연대투쟁을 상반기에 벌인 성과가 여성 한마당때 나타났다. 단위에서는 상반기에는 정대협 이외에는 없었는데, 단위의 통일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과 연대사업을 하였다. 실제로 정대협과 한소리회가 통일한마당에 참여하였다. 깊이 있게 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후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가져가면서 극복해야 하겠다.

<반미, 반일, 반김, 반가부장제 투쟁을 어떻게 실현시켜 들어갔는지>

(2)전반적인 전여대협 대중사업과 투쟁에 대한 평가

6기 전여대협은 김양무 선생님 평양방문 성사투쟁을 힘있게 최선봉에서 벌여 내면서 건설되었다.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학일꾼의 밤을 성사해 내면서 올해 2000년을 여학일꾼들이 선봉해서 '청년 김양무'로 살아갈 것을 결의하였다. 전여대협은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 할 것과 기층 조직을 건설강화할 것,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땅 식민지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는 여성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을, 그리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모순을 타파하는 투쟁을 벌여갈 것을 중심투쟁 과제로 두고 투쟁을 벌여왔다.

2월과 3월에 걸쳐 자행되었던 미군에 의한 우리 여인들의 죽음에 다시 한 번 반미의 각을 세우고 민중들에게 주한미군의 부당성에 대해 알려나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3월 1일 삼일절에 맞는 400차 수요집회를 전국의 여학단위에서 준비하여 개강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대중적으로 집중하여 수요집회를 성사해 내었다. 집회가 끝나고 선전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정권의 탄압에 맞서 여학일꾼들이 주동적으로 싸웠으며, 특히 유관순 언니를 연상케 하

는 의장님의 발언은 거기 모인 학우들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4월 총선 투쟁을 하면서 10대 요구안을 마련하여 구체적 과제를 전면에 걸고 투쟁을 하였으나 단위마다의 총선 투쟁을 해 나가면서는 좀 늦거나 주동적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4월 22-23일에는 전여대협의 의장님을 옹립하고 총노선을 채택하는 총회가 열렸다. 대의원의 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전여대협 의장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여학일꾼의 다짐과 드높은 결의로 전원 찬성으로 의장님을 옹립하였다. 특히, 전남대를 비롯한 몇 개대학에서 인식극을 준비하고 했던 주동적인 모습이 모범이었다.
5월 26-28일에 있었던 전여대협 출범식은 비록 늦은 시간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꿈에서 출범식을 치루어야 했지만, 연대단체의 발언이 있어 더욱 성과적이었으며 성명서를 낭독하여 올해를 전여대협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백만청춘에게 알려내고 합의하는 성과적인 자리였다.
여름농활의 여농반 활동을 통하여 전여농과의 연대를 강화하였고 기층 여성농민과 돈독한 유대관계와 정치사업을 통하여 여성농민이 주인주체로 서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다.
기활을 통하여 직접 기치촌에서 그 삶을 느끼고 주한미군 철거 투쟁을 더욱 더 힘있게 벌이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전여대협 수련회는 여학일꾼들이 상반기를 총화하고 이후 단위의 사업과 통일투쟁을 어떻게 벌여야 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결의를 높이는 자리였다. 그 안에서 진행되었 던 각 단위의 모범 총화, 박선애 선생님과의 간담회, 비디오 보기, 자여론 강연, 성폭력 상담교육 강연, 체육대회 등등등 모두 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 통일대축전· 10차 범청학련 통일축전에서 진행되었던 여성한마당은 그 의의에 맞게 통일 그 하나로 많은 연대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이겠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 공대위를 만들어 각 단위의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민특위 사업을 통해 미군의 학살만행을 4천만 민중에게 알려나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총괄적으로 평가하자면, 전여대협은 투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나갔으며 많은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였다.
올해 최우선 과제인 반미자주화 투쟁과 조국통일 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하였다.
운동대중화를 일궈내는데 있어 역시 많은 부족한 점과 어려운 점이 있었다.

2. 조직사상영역의 평가

(1) 현재 각 지역 각 대학의 여학생운동단위의 현황

<조직생활진행정도>

사무와 선전 2명, 부회장 없음.
1학기에는 중간중간 안될때도 있었지만, 정기적 회의가 진행되었다.
다 고학번이고 투쟁을 함께 해오던 사람들이라 정세를 합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여학운동에 대한 교양부족과 방학이 시작되면서 개인적인 일에 고민이 치우치다 보니 방중 조직생활은 거의 되지 않고 거의 회장 혼자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살아왔다.
조종례는 때에 따라 진행하였고 아르바이트 하는 집행부가 있어 다같이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진행하였고, 회의의 정형은 생활총화, 부서별 총화, 투쟁 및 사업평가, 논의안건, 결의안건, 기타 이렇게 진행되었고, 한달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였다.
성과는 조직생활 안에서 사업과 투쟁을 결의높게 가져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부 자신이 자기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자신의 성과, 조직적 성과로 남기보다는 분공을 수행하는 정도로 진행되어 투쟁과 사업이 있을때는 잘 진행되는데, 일상사업을 펼쳐가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것의 원인은 물론 일꾼들의 결의 수준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학운동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교양학습의 부재와 담화사업 등 일상적 지도가 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학습생활 진행정도>
학습은 개별학습의 경우, 회장은 정세 문건과 사상학습을 기본으로 진행하였고 여성학습은 2,3월에만 책 몇권 읽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다. 사무도 정세문건과 그냥 가끔가다 소설책 정도, 선전의 경우는 이책 저책 많이 읽는데, 특히 방중 아르바이트를 할 때 책을 많이 보았다. 책의 종류는 지식인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쓴 책들. 예를 들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인물과 사상 등. 집단 학습은 준비위 때와 선거 때는 자주적 여학생운동론부터 해서 한국 여성운동의 현단계 등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부터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총화 지도 정도>
총화는 사실총화는 잘 되었는데 깊이있는 고민총화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부 내의 조직적 단결을 이루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앞에 지도 언급)
<소모임 및 과여부 사업>
선거를 늦게 치루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
과 여학생회가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작년 운영위들을 총화할 때 선거를 늦게 치루면서 제대로 평가와 총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 이번 해에는 운영위를 세우지 못하고 1학여대협도 5월에서야 첫 모임을 하게 되었다. 1학여대협을 단위 대표자로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 속에서 단련되는 1학여대협으로 가져갈려고 했으나, 3번 정도 기본적인 모임을 하고 나서 기말고사가 시작되면서는 다 같이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개별적 연락과 만남 밖에 하지 못하였다.

(2)올해 단위에서 조직사상영역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되었는지
올해 전여대협에서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면화하자
자주적 여학일꾼이 되자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자
지난 시기의 평가 속에서 2000년 새로운 세기에는 더 이상 고삐를 늦추지 말고 여학생운동론을 확립 할 것과, 최근 몇 년간 조직역량의 많은 손실 그리고 또한 운동의 대중화가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핵심이 없이 운동대중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나부터 자주적 일꾼이 될 것을 그리고 기층 여학생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여학우와 여성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내는데 기층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 되었다
경기 총여에서는
반외세 민족자주정신으로 무장하여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을 확립하자
6기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과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굳건히 확립하자
(총여내의 사상적 단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기층단위와의 골간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 것,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여학우들과의 만남의 통로를 만드는 것, 여학일꾼의 재생산 구조의 확립)

(3) 당면 여학생운동의 조직역량의 점진적 확대와 여학생운동 사상 정립을 주요한 과제로 두고 사업과 투쟁을 풀어내고자 하였는데 전반적 평가

대중사업과 투쟁 조직 사업과정에서의 모범 총화
전여대협의 가장 핵심적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주체평가
(1) 올해 사업을 결의하게 된 배경과 2천년 자신의 결의 및 계획은 무엇이었나?
2학년 때부터 막연하게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여건이 되지 못해 과에 있다가 오게 되었다. 결의는 나 자신이 더욱 더 자주적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결심으로 모든 것 다 바쳐서 투쟁하자는 결의로 시작하였다. 한 단위의 총여학생회장으로서 여성민중과 여학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살아가기 위해 학습정형을 세우고 학습을 일상화하는 것과 총여의 조직적 기풍을 세우는 것, 나의 대중관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2)올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수행정도 평가
-조직생활 참여정도(조직관)
회장으로서 정책의 역할까지 겸임했으며, 나는 참여정도의 평가보다는 조직 운영자로서 많은 부족한 지점이 존재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세의 요구를 받아안고 투쟁할 나 자신의 결심은 있었으나 함께하는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일상적 총화와 깊이있는 총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풀어나가는 부분이 부족했기에 조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되었다.
하반기의 과제로서 꼭 풀어나가야 하겠다.
서여대협에서는 한 단위의 대표자로서 서여대협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 주체로서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러나 보위의 문제도 있고 했지만 시간엄수 또한 사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잘 못 지킨 적이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 비판할 부분은 조직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제때제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가서 작성이나 분공완수 등... 이것의 본질적 문제는 조직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세와 관점의 문제이다.
-분공수행평가
-국별사업평가
-학습생활평가
-동지들과의 관계
동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나의 품성은 어떠한가?
온정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비판과 자기 비판 속에서 많은 것을 혁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상반기 잘못되었던 부분은 단위의 집행부들과 죽으나 사나 지지고 볶고 해야하는데, 좋은 말로 아글타글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지도사업 평가
-학우들과의 만남 및 대중관 평가

(3)상반기를 살아가면서 운동에 대한 신념과 낙관, 자신의 사상의식변화추이는 어떻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를 낳게 한 계기는

(4) 가족 및 개인 신상 총화

-건강 문제

학교에서 살게 되니 예전보다 좋지는 않다. 담배가 늘었고, 술을 버텨내는 힘(?)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자기 점검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다.

연애 문제

지금 특별한 것은 없지만 애인이 있었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혁명적 연애가 뭔지 몸소 실천(?)하고 싶다.

-집안 문제

수배가 되고 형사들이 집에 찾아오면서 식구들과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다. 앞으로는 이것이 잠깐의 학생운동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집안 식구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전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현재는 통축에도 이틀 연속으로 오시고 쌀과 옷도 가져다 주시는 좋 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안 그러시겠냐마는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이 걱정이라면 걱정.

-학업문제

무엇을 얘기하라는 것인지...

별로 신경 못쓰고 있고, 학기로는 4학년 2학기인데 졸업 못합니당!

가능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집에 돈 달라기가 미안시려워서...

-전망문제

제일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다. 단기적으로 내년 전망이라면 여학 운동을 계속하고 싶고 장기적으로도 자민통에 복무하면서 여성운동을 계속하는 것. 아직 좀 막연한 것이 사실이고 학교와도 총화를 해야 할 부분이기에 뭐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하겠슴다!!!

(5)상반기 전반적인 자신의 성과점과 한계점

(6)자신의 향후 결의

결심하면 밀고 가자!!!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 같다.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는 학습과 실천활동을 계획한 대로 결사관철하는 것.

두루뭉실하게 살았던 과거를 반성하며 '답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자신의 단위에서는 전여대협의 사업과 계획 결사관철 하면서.